[카드뉴스] 새로워진 핀테크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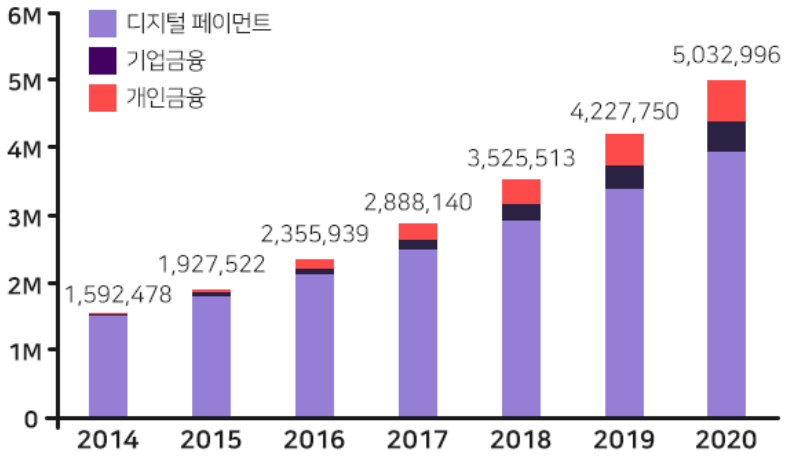


바야흐로 금융 격변의 시대다. 특히 핀테크 시장은 인수, 통합의 바람이 휩쓰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사업적 전략이 쏟아지고 있으며,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디지털 전환(DX)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핀테크 M&A에 주목하고 있다.

글로벌 핀테크 업계는 급성장 중

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결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
핀테크 업계 급성장.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벤처로 대규모 자본 유입되면서
투자 총액과 거래 건수 급증.

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 단위 : 백만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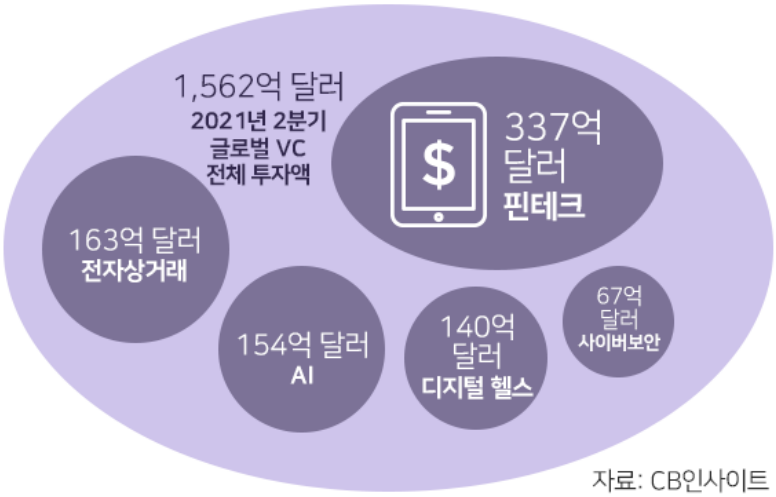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 / 출처: Statista

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총 가치 '껑충'

지난해 4월 CB인사이트가 발표한 '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리스트업'을 살펴보면
610개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2조330억 달러였고,
그 중 핀테크 유니콘의 기업가치는 3,770억 달러를 기록해
유니콘 중 가장 큰 부분(18%) 차지.

분야별 글로벌 VC 투자 추이



자료: CB인사이트

글로벌 핀테크 급성장 요인, 투자 집중과 M&A

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단기간에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
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(PE)가 핀테크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 그리고
핀테크 업체 간 혹은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M&A의 2가지 요인으로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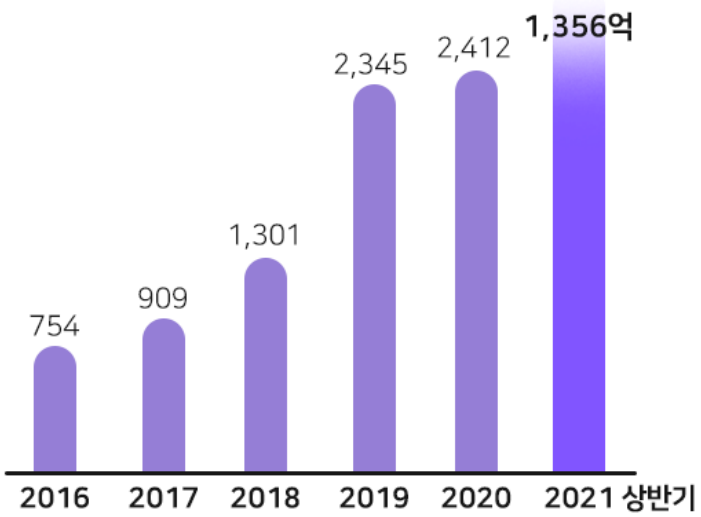
핀테크 투자 분야

- 1위 지급결제 (517억 달러)
- 2위 블록체인·가상자산 (302억 달러)
- 3위 사이버보안 (48억 달러)
- 4위 자산관리 (16억 달러)

자료: KPMG International 'Pulse of Fintech H2'21'

글로벌 핀테크 M&A 투자 규모

단위 : 달러



자료: 핀테크 투자은행 FT파트너스

핀테크 투자와 M&A 고공행진 이유는?

현재 세계 금융 시가총액 상위권이 은행권에서 비은행, 빅테크와 핀테크로 변화는 중.
코로나19가 가져온 디지털 가속화로 리테일뱅킹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
그 결과 리테일뱅킹이 핀테크의 간편결제 투자로 대체하는 중.

지난 10년간 글로벌 핀테크 M&A 톱5

순위	업체	주요 내용	비고
1	PayPal	중소기업 자금 관리 및 결제 플랫폼 iZettle, Hyper Wallet 인수, 암호화폐 보안 인프라 Curv 인수	국제 송금 및 결제 플랫폼 기업 인수
2	BlackRock	자산소프트웨어솔루션 eFront, 고객 현금관리 Cache Matrix, 금융관리기술 Aquila Heywood, 인공지능 펀드매니저 솔루션 Aperio	금융자산관리와 투자를 자문하는 통합 솔루션 핀테크기업 인수
3	Goldman Sachs	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 Financeit, 인공지능 개인자간관리 앱 클래리티 머니(Clarity Money)	중소기업 대출 및 모바일 뱅킹 영역 진출
4	mastercard	온라인 상거래 및 사기방지기술 Ethoca	간편결제 및 사기 방지 기술 인수
5	kraken	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크립토 퍼실리티즈 (Crypto Facilities) 인수	핀테크의 신분야 개척

koscom NEWSRO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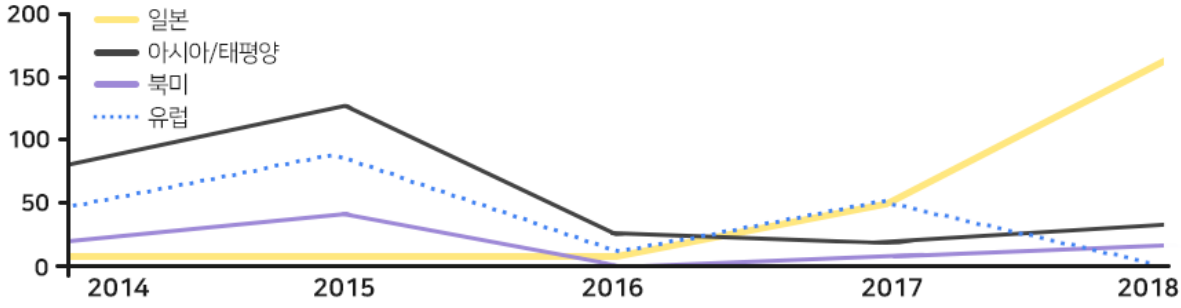
핀테크 업계 세계적 흐름은 해외진출

글로벌 핀테크 M&A 부문에서 지난해 크로스보더 M&A가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하며
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본격 예고.
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일본 핀테크 업체를 인수해 화제.

일본 내 크로스보더 M&A 사례

- PayPal ↔ BNPL 제공사인 일본의 핀테크 스타트업 '페이디(Paidy)'를 27억 달러(약 3조 1,680억 원)에 인수
- Google ↔ 일본의 스마트폰 간편 결제 기업 '프링'을 약 200~300억엔 규모에 인수
- Apple ↔ 스마트폰 간편결제 '애플페이', 일본 교통카드 '스이카' '파스모'와 연동해 결제 및 충전 서비스 제공

세계 주요 지역의 핀테크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: 전년대비 투자건수 증가율 %



자료: CB인사이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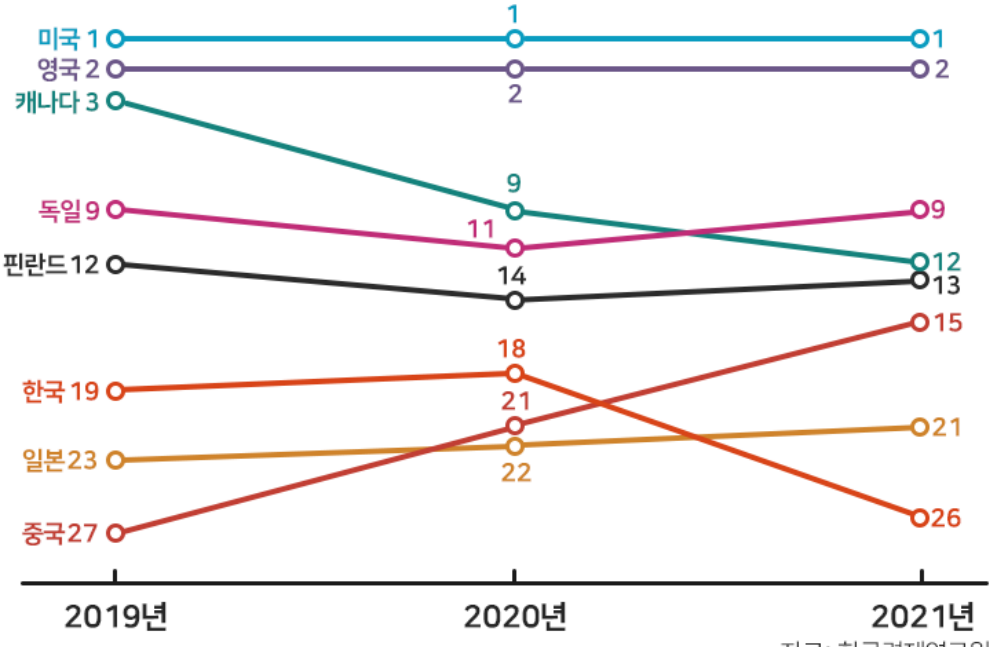
koscom NEWSROOM

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체기? 숨고르기?

국내의 경우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급성장세에 비해
2015년~2020년 비교적 발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더뎌진 상태.

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

단위: 위, ranking



자료: 한국경제연구원

국내는 기존 금융사의 '비은행 부문' M&A 적극적

최근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체기라는 분위기와 달리
기존 금융사의 M&A 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.
시장에서의 평가도 각 사 모두 M&A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의견 다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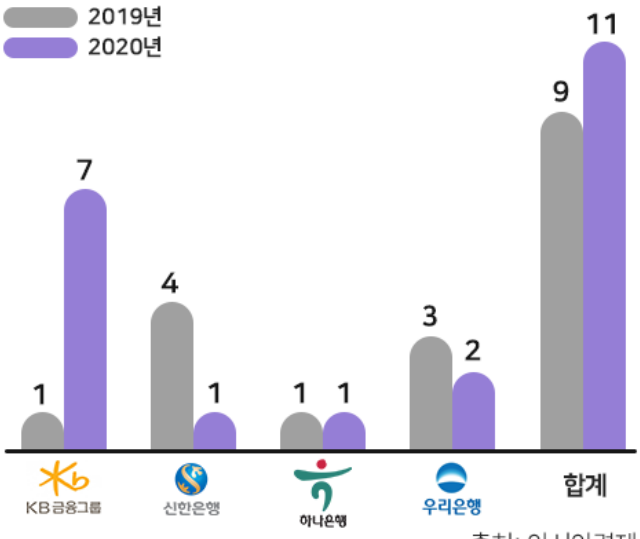
국내 금융사 M&A 추이

2020년 KB, 신한, 하나, 우리금융 지주가 단행한 M&A 건수: 총 7건

- KB금융지주
  푸르덴셜생명을 포함해 4건
  (가장 성공적인 M&A로 평가)
- 하나금융그룹
  더케이손해보험 인수
  (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익 45억원 기록)
- 신한금융그룹 네오플럭스 인수
- 우리금융그룹 아주캐피탈 인수

4대 금융지주 M&A 및 자회사 신설 추이

단위 : 개사



출처: 아시아경제

국내 핀테크 M&A 애로사항

금융사 내부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출자, 인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
비은행 부문의 M&A, 특히 금융사의 핀테크 M&A가 취약.
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도 어려움 있고,
핀테크 업체들도 M&A를 기대한 벤처캐피탈, PE투자를 받기 어려워 성장에 제약.

핀테크 산업 관련 주요 규제 쟁점

구분	쟁점 사항
금융소비자 보호법	• 일부 보험상품 판매 및 추천 서비스 중단 • 현행법상 보험 및 투자 중개업 등록 불가
전자금융 거래법	•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'동일기능 동일규제' 압박 •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시 자본금 200억 원 이상 요건 부담
망분리 규제	• 오픈소스 사용 제한으로 개발자 어려움 계속

자료: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업계

핀테크 투자 및 M&A 활성화 기반 마련 시급

핀테크 업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
핀테크지원육성법 등 인프라로서 투자와 M&A에 유연성을 높여야 함.

핀테크 지원 추이



핀테크 육성

koscom :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서비스 환경 조성과 디지털 금융 혁신에 박차

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 : 핀테크인터십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핀테크 업체 인력 지원



M&A 인식 변화

지난 5년간 이뤄진 국내 M&A 대부분은 계열사 간 거래로 그 비중이 50% 차지
통합의 시대에 이업종 간 M&A가 기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 담보



M&A 시장 참여자 다양화

2020년 이후 기업형 밴처캐피털(CVC) 활성화

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